호남 경쟁률 4.5 대 1…광주 8.3 대 1 가장 치열

■통합민주당 공천 신청 마감

통합민주당이 개편전 지역구를 기준으로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호남 지역 공천 경쟁률은 4.5대 1로 나타나 전국 평균(2.1 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광주는 북구 갑이 12명 신청으로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것을 비롯, 7개 지역구에 58명이 신청해 광역권 가운데 가장 높은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13개 지역구에 69명이 신청해 5.31대 1, 전북은 11개 지역구에 75명이 신청해 6.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북갑 장병완씨 등 12명 몰려 최대 격전지

순천 서갑원·이평수씨 등 10명 신청 전남 최다

◇광주=7개의 선거구에 58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 갑은 강기정 의원과, 장병완 전 장관, 김재두 수석부대변인 등 무려 12명의 공천 신청자가 몰려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남구도 지병문 의원과 정기남 한국사회연구소장 등 11명의 공천 신청자가 몰려 북구 갑에 이어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특히, 남구에 공천을 신청한 강운태 전 의원은 당적 문제가 26일 정리될 예정이어서 비공개 신청자로 분류됐다.

서구 을은 막판에 공천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동채 의원,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 등 10명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에는 김동철 의원, 이용섭 전 장관, 심재민 전 광주부시장 등 11명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첨단을 중심으로 한 '을' 지역에 무려 7명의 신청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전을 예고했다.

또한, 북구 을에는 김태홍 의원,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등 6명이 공천 신청을 마쳤으며 서구 갑은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등 5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동구는 양형일 의원과, 박주선·김경천 전 의원 등 단 3명이 공천신청을 하는데 그쳤으나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13개 지역구에 69명이 신청, 5.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순천시는 서갑원 의원, 이평수 전남동부경제발전연구소장 등 10명의 공천 신청자가 몰려, 전남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다음으로는 담양·곡성·구례로 선거구가 조정될 장성·담양·곡성 선거구로 김효석 원내대표, 국창근 전 의원 등 8명이 공천신청을 마쳤다.

장흥·영암·강진으로 지역구가 바뀌는 장흥·영암에는 유선호 의원과 유인학 전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해남·진도·완도로 지역구가 전환될 해남·진도에는 채일병 의원과 이정일 전 의원 등 7명이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또, 지역구의 분할이 이뤄질 강진·완도에는 이영호 의원과 김영록 전 전남부지사 등 6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해남·진도·완도로의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나주·화순에는 최인기 의원, 배기운 전 의원 등 6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목포시에는 박지원 전 장관과 이상열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박 전 장관의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흥·보성에는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신중식 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의원이 버티고 있는 무안·신안에는 3명이 공천을 신청하는데 그쳤고, 인근 장성과 지역구가 합쳐질 함평·영광에는 이낙연 의원 등 3명이 신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효석 때문에…

'연고 없는' 담양·곡성·구례 공천 신청

광산구 등 예비후보자들 희비 엇갈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고심끝에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김 대표의 지역구 선택과 관련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등장은 해당 지역구의 판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구례·담양·곡성의 표밭을 갈아온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 의원이 고향인 장성(영광·함평) 지역구를 외면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담양·곡성·구례로 왔다는 것이다.

당장, 담양·곡성·구례에 공천을 신청한 양성철·국창근 전 의원 등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이 한때 이동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구 분구 지역 예비후보들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호평과 함께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뒤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 동안 함께했고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했던 지역이 담양·곡성이었다는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지역구 이동 배경을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4·9 총선 현장

장병완, 광주 북구 갑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북구갑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장병완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아주택 전시관에서 강정채 전남대총장,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통합민주당 주승용·지병문·강봉균·원혜영 의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

장 후보는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 당시 광주에만 2조319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같은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북구와 광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광주 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신지식 산업을 육성하고 출향·외국기업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박주선 '5·18부상자회' 감사패 받아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지난 2001년 '5·18유공자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

박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 가족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민주화 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명예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조영택 "투명·객관적 공천 심사 기대"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뒤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본격적 공천 경쟁에 돌입.

조 후보는 "공천 심사가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견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

지병문 "부패·철새 정치인 퇴출해야"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24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철새 정치인이나 부패 연루자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

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선은 민주개혁세력의 생존력을 실험하는 선거"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천을 실시,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

강운태 "통합민주 입당…남구 공천"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통합민주당 입당 서류와 함께 광주 남구에 공천을 신청.

강 후보는 "그동안 중도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건강한 모든 정파의 통합이 마무리된 만큼 이 대열에 합류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다짐.

한편 민주당은 강 후보의 입당 자격 유무에 대해 2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결정키로 합의.

김태욱 '동구 발전 간담회' 가져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지역상인 대표 등 문화 예술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동구 발전 방안을 논의.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충장로 1~3가 아케이드 거리 조성, 금남로 지하상가의 코엑스몰화, 예술의 거리 리모델링, 중앙초교 일부 공간의 전업작가 활동 공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당부.

김영진 '개인택시 신협 총회' 참석

○…김영진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광주 일곡동 광주·전남운수연수원에서 열린 광주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총회에 참석해 "일등광주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김 후보는 "택시조합원 여러분들의 친절과 봉사 그리고 헌신의 정신은 광주의 자랑"이라며 "조합원 여러분의 뜻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김동철 "새 정부 독주 견제 야당 건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며 총선행보를 본격화.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고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 것이 과제"라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할 각오가 돼 있는 의원을 뽑아달라"고 호소.

이병화 前 광주부시장 "서구 을 출마"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조선대 교수)이 지난 23일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공천신청을 하고, 총선 예비 후보 대열에 합류.

이 전 부시장은 "OECD, 기획예산처, 광주시 등 풍부한 관직 경험과 해외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광주 R&D특구 지정 등 광주경제 살리기의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고 피력.

심재민 '총선 승리 4가지 원칙' 제시

○…심재민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합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천에서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심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 정책 경쟁, 깨끗한 승복 등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공천 경쟁의 기준을 제시.

송두영 "'1경로당-1사' 추진할 것"

○…송두영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24일 관내 경로당과 기업들이 자매결연하는 '1 경로당-1 사(社)'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송 후보는 "대다수 경로당은 겨울철 난방비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면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김영룡, 화순 포기 서구 을 공천 신청

○…김영룡 전 국방차관은 23일 당초 출마 예정지였던 고향 화순을 포기하고 광주 서을로 공천을 신청.

김 전 차관은 "화순이 장흥과 합쳐져 지역구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고향에 출마를 하려했으나 예상대로 되지 않아 광주 서을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홍행기·윤영기·김지을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